

현대오일, 임금협상 41년간 무분규

2005년에도 임금인상 회사 일임 ... 노조는 실리추구로 공동발전 모색

현대오일뱅크가 임금협상 41년 무분규 타결 기록을 수립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노동조합이 2005년 임금협상에 관한 결정을 회사에 위임키로 결정함에 따라 1964년 창립 이래 무분규 임협타결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고 6월29일 발표했다.

임금협상 41년 무분규 기록은 국내 대기업 중 극히 드문 일로,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영진과 노조의 참여 및 책임의식이 빚어낸 결과로 해석된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설비고장률, 제품불량률, 근로자 재해율 제로 운동인 TPM(Total Productivity Management) 활동을 수행하는 등 노사합심으로 임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해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결국 노조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노조가 인식해 벌이고 있는 생산혁신 활동이다.

현대오일뱅크는 노조의 자발적인 혁신운동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최근 대산공장 근무자와 현지 거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 4층의 실내체육관 기공에 들어갔다.

현대오일뱅크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노사 모두 실리를 추구하면서 함께 발전해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해 임금결정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서영태 사장은 “41년간 무분규 임금협상으로 노사 상생문화가 굳건히 뿌리를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협력과 화합의 열린 노사관계를 지향해 회사의 비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6/30>